

배포일시	2018. 10. 1.(월) 11:00 (총 5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기상청 기후정책과 인천시 녹색기후과 환경부 기후전략과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	담당자	과장 과과장 과과장	이윤서 강현홍 정모원	전화번호 02-2181-0392 032-440-5978 044-201-6640 02-2100-7859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승인 위한 포문 열었다!

-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개최식 개최 -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의 개최식이 10월 1일(월) 10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개최식에는 135개국 정부대표단 및 국제기구 대표 총 570여명이 참석하였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정책에 관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하여 지금까지 5번의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총 195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

- 개최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축사를 상영하였으며, 국내 인사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종석 기상청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참석하였고, 국외 인사로는 이회성 IPCC 의장, 엘레나 마나엔코바(Elena Manaenkova) WMO 사무차장, 지안 리우(Jian Liu) UN환경 과학국장, 유세프 나세프(Youssef Nassef) UNFCCC 적응총괄국장 압달라 목쌩(Abdalah Mokssit) IPCC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서 더욱 안타깝다”면서, “기후변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전 세계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번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어 더욱 강력한 국제적 실천을 결의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희망하면서, “대한민국도 환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이회성 IPCC 의장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각국 정부와 저자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IPCC는 확실하고 강력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제공을 약속하며 개최를 알렸다.
- 엘레나 마나엔코바 WMO 사무차장은 앞으로도 극한 기후 등 기후변화 과학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안 리우 UN환경 과학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승인 예정인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했다. 유세프 나세프 UNFCCC 적응총괄국장은 IPCC 보고서가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UNFCCC는 IPCC와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극심한 기후영향이 자연의 경고임을 상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김종석 기상청장은 특별보고서가 예정대로 승인되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녹색기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값진 성과가 얻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10월 5일(금)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한 문장씩 검토 후, 모든 회원국의 동의하에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채택된 보고서는 올 12월 2일(일)부터 14일(금)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탈라노아 대화*의 주요 과학적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 탈라노아 대화: 'Talanoa'는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들의 포괄적·참여적·투명한 대화 방식을 의미하며, 파리협정 장기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촉진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다. 2018년 연중 개최되며, 준비 단계와 정치적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 붙임 : 제48차 IPCC 개회식 환영사 주요 내용

□ 김은경 환경부장관

- 지난여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폭염, 홍수 등 극심한 기후영향이 자연의 경고임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 김종석 기상청장

- 지난 30년 간 전 세계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온 IPCC에 사의를 표하고, 기후변화가 미래 세대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전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정책과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상청은 우리나라 IPCC 주무부처로서 향후 IPCC 보고서 작성을 위해 더욱 크게 기여할 것임을 언급.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 회원국 정부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을 환영하면서, “인천은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세계 기후문제 대응의 중심도시가 되었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인식하면서 저탄소, 녹색기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총회기간 중 열띤 고민과 논의를 통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SPM 채택 등 값진 성과가 얻어지길 바란다”고 언급.

□ 이회성 IPCC 의장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국 및 저자 등에게 사의를 포함.
- “이 특별보고서는 IPCC의 과학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건설적이고 협력적 정신으로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제공할 것”이라 밝힘.

□ 엘레나 마나엔코바 WMO 사무차장

- IPCC 설립 30주년을 축하하고, 기후변화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으며 대응을 위한 더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의 말을 언급하였음. WMO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감시를 철저히 하고, 극한 기후 등에 대한 기후변화 과학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지안 리우 UN환경 과학국장

- 그동안 IPCC의 공헌과 그 토대를 마련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IPCC 이회성 의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을 치하하고 이번 총회에서 승인 예정인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포함.

□ 유세프 나세프 UNFCCC 적응총괄국장

- 지금까지 기후 대응 조치를 위한 과학이 이렇게 긴급한 적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매우 기다리고 있음을 밝힘. IPCC 보고서가 UNFCCC의 중요한 시점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고,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UNFCCC는 IPCC와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언급.